

우리 가정이 설날 명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풍요하고 부요한지, 혹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한해 우리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소망이 대대손손 전해지고 대물림되는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2018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 도 **인도자**

(기도 시, 가족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주기도문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빛이 있으라!”

2 0 1 8
설 날
가 정 예 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1-2)



謹賀新年

대안예수교 생명샘교회
 장로회
 www.lifesam.net 031)288-9900

예 배 순 서

인도 : 가족 중에서(가능하면 가장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브루타 **다함께**

질문: *아빠, 엄마(OO야), 2018년 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어요?(있니?)*

사도신경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새 559장 (통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족중**

(각 가정에 맞게 기도하시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도문 참조)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설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자 오늘 온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믿음 안에 거하는 한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올 한해 온가족이 서로를 존중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정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시편 105:39~45 다함께**

말 씀 **우리 주님과 함께 인도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사람씩 나누어 봅시다(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눔, 경청, 칭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때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굳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항상 성령님께서서 우리 가정을 이끄셔서 화평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설날을 보내면서 이러한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 길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결과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길은 그리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자손손 그 길을 기억하며 매 명절이 되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됨을 지금도 회상합니다. 광야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목마름의 길이었으며 배고픔의 길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은 늘 좋은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후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